

## 제133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9. 3. 26.(화) 11:00~13:30

☐ **장 소** : 달개비(서울시 중구 소재)

☐ **참 석 자** : 이사 10명, 감사 1명

○ 이 사 :

○ 감 사 :

☐ **업무보고**

○ 2019년 주요업무 보고

☐ **심의안건**

- [제1안건]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
- [제2안건] 임원연임(안)
- [제3안건] 2018년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안)
- [제4안건] 2018년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
- [제5안건] 2018년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안)
- [제6안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7안건]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제8안건]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 [제9안건]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보고안건**

1. 기금운용 보고
2. 2019년 이사회 운영계획
3. 조직운영 컨설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 회의록 내용

- :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보고에 앞서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당연직 이사가 되신 이사님과  
서울연구원 근로자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이사님입니다. 서울시  
이사님입니다. 서울연구원 이사님입니다.  
근로자이사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이사장님께서 근로자이사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근로자이사] 임명장 전달
- : 오늘 이사회 성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12명 중 10명과 감사님이 참석하여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 안건이 많기 때문에 2019년 주요  
업무 관련 질의응답 및 토론은 안건심의 후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우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총 9개이며, 첫 번째 안건으로 서울연구원 정관일부개정(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연구원 정관개정(안) 제안 설명]
- : 서울연구원 정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두 번째 안건으로 임원연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임원연임(안) 제안 설명]
- : 서울시의 방침으로 임원 연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법률전문가의 「지방출연연구원법」 검토결과 관련법상 연임시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가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연임기간은 계속 3년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분 모두 연임하셔서 연구원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으신 이사님들 계십니까? 저도 서울시에서 요구한 연임기간의 개정안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연임하는데 단 1년에 한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 : 이사연임(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임원이라 함은 이사와 감사를 통칭하는 것인가요?

- : 네. 연구원 정관 제13조에 이사와 감사가 모두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18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안)], [201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 [2018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안)] 안건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 [2018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안)], [201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 [2018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안)] 제안 설명
- :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의 한 해 업무를 마감하는 안건으로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사전검토를 해 주신 감사님의 검토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 이사회 전에 재무팀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3건의 결산안건에 대해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연구원의 2018년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아집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무차입 경영이 유지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차익금도 없습니다. 다만, 보고 받으신 대로 부채가 조금 증가한 것이 있어 그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먼저, '예산회계결산(안)'은 결산결과 1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차년도 이월예산 퇴직급여충당금 부채부족분에 대한 적립금에 사용할 예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잉여금 발생액이 크지않아

기본재산적립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잉여금 발생이 크지 않다는 것은 차년도 이월예산이 전년보다 조금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회계결산(안)'입니다. 새로운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으면서 수치상이나 종목분류상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중요성의 관점에는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무상태에서 자산·부채·자본이 2017년보다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의 전체적인 규모나 운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채증가분이 조금 있지만 이것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가 주요원인이고, 금융부채는 없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익순이익에 당기순이익이 3천7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비영리법인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관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처분(안)'입니다. 기관의 유보된 이익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2018년 이익잉여금이 모두 49억 원입니다. 상정된 처분안은 이자수익 2억4천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분안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따른 처분안도 아니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결산안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 :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건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전년도 비교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거나 변화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규직화나 연구원가의 변화라든지 예년에 비해 2018년 운영결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 : 석사급 연구원 78명 정규직전환에 따라 급여와 퇴직충당금 부담이 커지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석사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비에 포함되었다가 정규직전환에 따라 정규직인건비로 옮겨지면서 수치가 달라진 부분이며,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상 단기계약직 연구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계약직 연구원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차원에서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면서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요소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 :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없으시면 [2018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안)], [201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 [2018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안)] 3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 다음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안건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안건을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년에 서울특별시장께서 중앙정부하과의 관계 속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과 주장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내부 차원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해 왔었지만, 한 단계 더 진화시킬 필요성과 각 구청이 지니고 있는 정책 역량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과 시도의 필요성 차원에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각 구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기능을 갖고 있으나, 대략 7~9명의 연구역량들을 구청이 운용할 수 있도록 권고 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박사 1명, 석사 1명을 인원을 선발하여 구정연구단에 파견하여 지원·관리하는 것을 서울연구원에서 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각 구청에 제안을 했으며, 각 구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25개구 전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현재 각 구에 파견될 50명을 선발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할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연구원 내부에 만들어 도시경영연구실에서 총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담당할 박사1명, 석사1명의 인력을 새롭게 선발하는 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연구원 직제표에 들어가나요?
- : 임시기구로 출발하였으며, 운영하는 것에 따라 추후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선발하는 분들은 계속 그 일만 하나요? 이후 보직을 바꿀 수도 있는지요?
- : 일단은 '구정연구지원센터' 정원으로 시작하지만 보직 변경은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 : 50명을 누가 뽑나요?
- : 50명은 연구원에서 선발을 합니다. 구청에게 분야와 전문성을 확인하여 분야별로 선발하고 파견할 계획입니다. 일단 3년 보장했습니다만, 3년 운영 후 어떻게 할지는 검토하려고 합니다.
- : 50명은 누가 관리 할 것인지? 구청의 자율성을 생각한다면 서울연구원의 관리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청지원에 정책 기획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비정규직원 2명을 보충해서 구청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충실하게 자체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여 운영은 구청에 맡기거나, 서울연구원의 연구진이 필요에 따라 구청에 나가서 연구원의 방대한 지적인프라를 구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나 방식에 대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 구청연구지원센터는 제 소관입니다. 실제로는 말씀대로 구청이 스스로 자기 연구단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구청의 행정규모를 감안한다면 초창기 5~6명으로 구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구청연구단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모아져 서울연구원의 전문적인 식견을 통하여 연구와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5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서울연구원 정규직원으로서 파견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무늬만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 : 구 차원에서 5~7명을 자체연구단을 구성하게 되었고, 거기에 서울연구원이 지원하여 촉매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 구정연구단은 구청 스스로 연구인력 운영이 한계가 있어 보이며 연구원이 중간에서 지원하는 성격으로 현장연구를 강화한다면 구정연구나 현장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수도권의 우수인력이 많이 대기상태입니다. 보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3년 비정규직이라는 구정연구센터 인력운영 계획을 보면 석·박사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을 어떻게 성과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적당히 하다가는 2~3명 가지고 성과를 보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청은 구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고, 서울연구원은 현장연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연구 강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연계시켜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되 시작단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 16페이지에 구정연구센터 정규직 2명, 비정규직 말씀하셔서 관계성에 대해 혼란이 됩니다.

- : 2명은 정규직으로 연구원 내의 구정연구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며, 50명은 비정규직으로 각 구청에 2명씩 파견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 : 50명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 : 17억 원입니다.

- :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없으시면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원안의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앞에서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 개선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채용비리사항이 서울시 감사의 주된 관심사항 같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정규직만 다루고 비정규직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따로 다루라고 서울시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인사위원회 보다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중요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 지적이 된 것입니다.
- : 대학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인사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함께 다룹니다. 채용, 승진, 징계 등을 인사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운영위원회는 대학 전반의 운영에 대한 상황을 결정하는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연구원의 운영위원회는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 : 이런 구조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 : 인사위원회 두고 그 안에 운영위원회를 둔 건지? 아니면 별도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인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한 건지요?
- : 인사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다뤘었다, 인사위원회가 있음에도 인사위원회의 중요한 고유 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뤘은 것 같다. 감사에서 바로 잡으라고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운영위원회는 조직전반에 관한 사항을 원장이 위원장이 되어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 논리적으로는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판단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그동안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징계사안이나 몇 개의 사안만을 다루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연구원은 늘 사람을 선발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선발하고 서류나 면접심사 등을 거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 50%와 내부 50%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의 채용이나 재임용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채용의 경우 당연히 투명한 공개경쟁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짧게는 3개월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은 수시로 채용과 임용 절차가 진행되며, 매번 외부 위원들을 초빙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월 10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투명한 채용절차를 거쳐 신속히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인사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로 두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이해는 가는데 편제상 검토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구분이 오해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원 승진이나 징계 시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맞습니다. 수시 필요 인력에 대해 원장의 승인만 거치고 채용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관련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오해가 없도록 보완하여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체계상 문제인데요, 보통 연구원의 운영위원회라 하면 인사 분야 외에도 재정 등 폭넓은 분야를 심의하는 상위기구여야 하는데, 인사규정에 의거해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규정 등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을 심의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운영위원회를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인사운영위원회'나 '소운영위원회'로 특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운영위원회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 :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 :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야겠네요.

○ : 운영위원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나요?

○ : 현행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 규정을 인사규정에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 : 내부규칙으로 정해진 겁니다.

- : 이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사규정에서 인사 이외 제반운영사항을 논하는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만든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 분리를 해야겠네요.
- : 첫째, 운영위원회 근거 규정을 인사규정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둘째,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관리, 결정과정 등이 상당히 다른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비정규직 결정관리를 소위원회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위임해야 하는지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이사님 말씀처럼 인사 관련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매번 정기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하기 힘든 사항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하며, 인사 이외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규정과 별개의 규정이나 규칙 안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 : 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뿐만이 아니라, 연구직과 행정직의 내용이 다릅니다. 연구직인 경우 인사위원회 회의 시 연구의 정성·정량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초빙되지만, 행정직이나 관리직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직무의 내용에 따라도 인사위원회 성격도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중 '운영위원회 근거 조항 신설(안 제61조)'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이사님들에게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없으시면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안건은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다음 조문 개정 시에는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관련 조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늘 마지막 안건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 :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보고안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 [보고안건] 보고 설명
- : 보고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질문은 오찬을 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록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019. . .

이 사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